

[서식2]

독도동아리(팀) 소개서

동아리 (팀)명	규장각
<p>‘규장각’. 낯설지 않은 이름이실텐데요, 규장각은 조선 후기의 왕실 학술 및 정책 연구 기관이자 왕실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즉, 규장각은 조선 후기에 사회과학적 학문 성취, 그리고 사회 변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동아리 규장각도 오늘날의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식적 성취를 이끌어내며, 더 나아가 사회의 올바른 인식 변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p> <p>저희 동아리에서는 크게 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의 공유입니다. 주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기에 앞서 절차가 이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아리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회적 이슈 혹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기사를 쓰는 활동을 매달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개 활동을 조별로 진행하게 되는데, 기사를 쓰기에 앞서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모둠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사건이 이슈고,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와 연관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면 평소에도 틈틈이 뉴스를 보아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음에 두던 시사 주제에 대해 모둠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사회적 지식을 재구조화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슈를 몰랐다면, 모둠원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되기도 하고, 더 자세히는 기사를 위한 사전 조사를 거치며 알아가기도 합니다. 이는 저희학교에서 실시하는 배움을 더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가배지공’의 정신에 해당합니다.</p> <p>두 번째로, 지식의 확장입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이와 같은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캠페인 활동이 주로 여기에 속하는데, 이번 독도체험 발표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과정도 지식의 확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연세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학술대회인 KSCY 참가, 외국인 친구들을 인터뷰, 매달 정기적인 기사 개재, 학교 내외에서 전개하는 캠페인 활동 등 적극적으로 모둠원끼리의 의견 공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의 인식 변화에 일조하고 이를 더 파급력 있는 효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p> <p>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식의 확장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의 확장 단계가 지역 사회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식의 공유 단계에서 잘못된 해석을 한다면, 확장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되며 지식의 수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만 다분하기 때문입니다.</p> <p>저희는 임호석 선생님의 지도 하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선후배와 동급생</p>	

간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지킬 점을 지키며 지식의 공유와 확장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회를 거듭하며 대표 사회과학 동아리의 모델로 거듭날 것입니다.

독도동아리(팀) 활동 요약서

동아리 (팀)명	규장각
<div>❖ 목적</div> <div>1. 지식의 체계화</div> <p>본격적인 캠페인 및 독도사랑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기에 앞서 동아리원들과 충분히 주제에 대해 토의해보고, 자료 조사를 진행하며 스스로 지식을 재구조화하기 위함</p> <p>다른 사람들에게 주제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도 독도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했던 사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명색이 ‘독도 사랑 캠페인’ 인데, 우리가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캠페인의 본 의미도 퇴색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선행해서 중요시했고,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조사를 했던 것이 이 바로 이 목적에 속했습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은 조별로 진행하는 것이었기에, 그만큼 단기간에 자료조사를 많이 하여 거짓된 정보, 혹은 가장 정확한 정보, 설득력 있는 정보를 선별해내는 작업이 필수적이어야만 했습니다.</p> <div>2. 지식의 확장</div> <p>본격적으로 동아리원 중심의 주도적 형태의 캠페인 활동들을 진행하며 지식의 공유와 나눔을 통해 스스로와 다른 이들 모두에게 보다 더 나은 이해 수준을 일궈내기 위함</p> <p>동아리원들 스스로 앎을 공유하며 이해 정도를 높이고, 따로 독도에 관한 지식을 검색해볼 시간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를 전달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전파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 확장에 동참할 수 있다면 기하급수적인 수의 사람들에게도 지식 확장의 가능성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아는 것, 즉 지식의 확장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식의 체득화와 전이 단계를 여러 번 거친다면 진정한 의미의 지식의 확장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였습니다.</p> <div>❖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동아리 노력</div> <p>효과적으로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홍보하기 위해 고심하였고, 그 결과 발표회 개최, 점심시간을 활용한 교내 캠페인 활동, 독도 홍보용 부채 나눔행사, 쉽고 재밌는 독도 홍보 내용 요약 ucc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기본적인 목적은 지식의 체계화와 확장이었습니다.</p>	

❖ 특색있는 독도체험 및 홍보활동 사례

1. 독도 발표회 개최



△ 영어 교과교실에서 진행한 독도 발표회

- 여름방학을 맞이하기 전(7월 달 중순)
- 2학년 교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던 독도 발표회의 모습
- 독도 홍보용 PPT를 만들어서 수업 시간 시작 전후에 해당 교과 선생님의 허락 하에 진행 됨
- 내용은 독도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내용을 선정하였음
- 일본인이 독도에 관해 주장하는 주장을 우리 측이 역사적 사료로 반박하는 형식의 PPT를 통해 이해와 흥미도를 동시에 높이하고자 하였음

2. 독도 홍보용 부채 제작 및 배부



△ 도안1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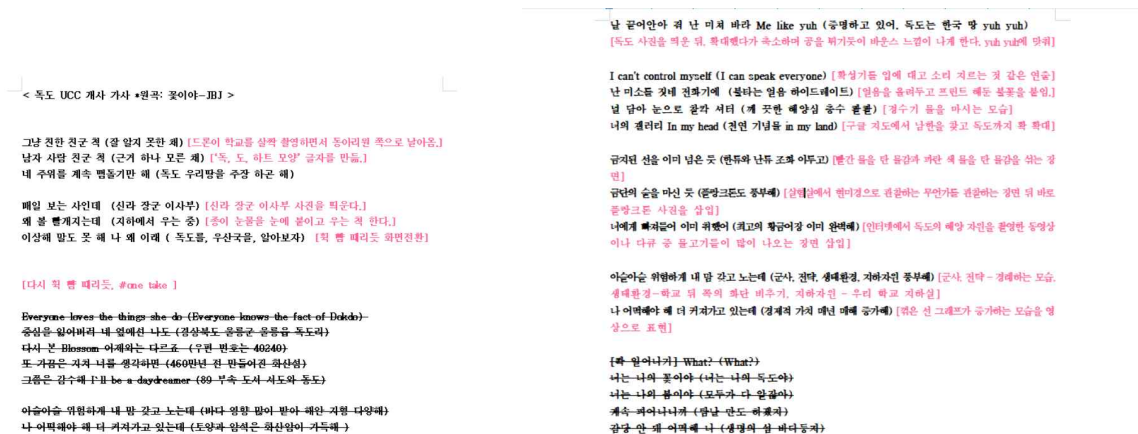
△ 도안2 [뒷면]

- 방학 중 등하교 시간을 이용해 독도 부채를 배부하였음
- 도안을 동아리원이 직접 제작하고 동아리원의 적선 및 기부로 부채를 주문함
- 여름인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채를 홍보용 물품으로 선정하였음
- 위 활동은 독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관심을 상기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음

3. 교내 독도 홍보 캠페인 진행

-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급식소에서 나가는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캠페인 활동이었음
- 독도에 관해 간단한 피켓을 제작하여 이젤에 설치함

4. 독도 ucc 제작



△콘티 [1]

△콘티 [2]

▽콘티 [3]

-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기보다 각자가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해봄
 - 홍보 방법부터 대상 등의 구체화를 위해 동아리원의 협동이 요구됨
 - 독도 사랑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해결력 향상에
- ▶ **고함**

3. 논증에 필요한 역사적 사료의 효과성 및 신중함의 필요성 체감

- 역사적 사료를 모을 때는 신중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동아리원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음

4. 지식 확장의 필요성 체감

- 뚜렷한 효과가 시각화되자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캠페인이 얼마나 효과가 큰 지 동아리원 모두가 직접 체감함

- 지속적으로 사회과학 캠페인이 이루어진다면 인식 변화에 큰 역할을 하리란 것을 몸소 느낌

❖ 소감 및 일반화 계획

기본적으로 지식의 확장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의 확장 단계가 지역 사회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지식의 공유 단계에서 잘못된 해석을 한다면, 확장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되며 지식의 수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만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회 개최, 점심시간을 활용한 교내 캠페인 활동, 독도 홍보용 부채 나눔행사, 쉽고 재밌는 독도 홍보 내용 요약 ucc 제작 등 독도사랑을 위한 캠페인을 실천하면서 이를 더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친구들 가운데는 활동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독도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꼭 캠페인 활동을 할 때가 아니더라도 어느 상황에서나 독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지식을 내면화하는 것이 본 대회와 진목적이 아닐까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독도는 우리땅’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지식을 내면화해서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것일 테니까요. 만약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대회의 목적과 동시에 동아리의 결성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캠페인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씨앗이 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입과 머리를 모두 모아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전인숙 선생님의 지도 하에 선후배와 동급생 간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지킬 점을 지키며 지식의 공유와 확장의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참가를 통해 두 가지, 지식의 확장 단계로 가는 데 필요한 사료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내면화 과정의 필요성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회를 거듭하며 대표 사회과학 동아리의 모델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동아리원들과 함께 의견 조율을 통해 꾸준히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진행해왔던 독도 캠페인의 경우, 교내 캠페인에서 벗어나 인근 학교의 등하교 시간을 이용해 더욱

더 광범위한 단위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에 교내에서 진행했던 독도 부채 배부, 설명회 개최 외에 독도 책갈피 혹은 팔찌 만들기 코너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진행했던 독도 캠페인의 효과가 좋아 교내에서도 전에 진행했던 활동을 동아리 후배들에게 설명하고, 연간 진행하는 고정 코너로 만드는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겨울에 다가오는 축제 때에도 동아리 부스에서 독도와 다른 사회적 이슈들을 모아 이슈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쟁점과 우리가 기울여야 될 노력에 대해 어필하고자 합니다.